공군 제1전비 '물의 날' 환경정화 활동

공군 제1전투비행단(단장 정경두)은 22일 광주시 북구 용산교 고수부지에서 장병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8회 세계 물의 날' 행사를 갖고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영암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자녀에 장학금

영암소방서(서장 이기춘)는 최근 영암·강진군 의용소방대원 자녀 50명에게 5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광주테크노파크-한국표준협회 MOU 체결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남헌일·오른쪽)와 한국표준협회(회장 최갑홍)는 최근 광주테크노파트 중회의실에서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호협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 암 예방 캠페인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원장 윤정웅)와 광주시 5개구 보건소는 공동으로 지난 21일 세계 암예방의 날을 맞아 광천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암예방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 제공〉

광주시 지정 문화재 나전칠장 김기복씨

"광주만의 '건칠' 기법으로 세계적 작품 빚겠다"

〈옻칠을 말려서 하는 기법〉

"우리나라 전통 공예품 제작 기술인 나전칠장은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뛰어난 기술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에 비해 국내에서 찾는 이가 많이 줄어들어 아쉬울 따름이죠. 무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인기를 되찾았으면 합니다."

광주시 나전칠장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김기복(70) 나전칠장은 이같이 말하며 "전수자들이 많아져 대학 등을 통해 기술이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건칠 기술자 전국 1~2명 불과

'나전칠장'은 자개와 칠로 공예품을 만드는 기술이나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특히 광주는 칠과 먹, 목탄이 많이 생산돼 3흑의 고장으로 불리었으며, 사적 제375호인 신창동유적에서 칠기를 생산한 용기와 도구들이 발굴돼 칠공예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달 16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전칠장 등 2종목을 무형문화재로 지정·고시했다. 김 나전칠장은 나전과 칠에서 제작 기법과 조형미 등이 두루 뛰어나다고 판단, 보유자로 인정하게 됐다.

경남 통영시 출신인 김 나전칠장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통영 나전칠기 기술학교에 입학, 기술을 익혔다. 학교를 졸업한 후 광주에서 기술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의해 이 지역에 온 후 지금까지 나전칠장으로서 기술 전수는 물론 다양한 작품을 만들며 활약해 오고 있다.

김 나전칠장은 자신만의 '건칠' 방법으로 이용해 작품을 만들기로 유명하다. 옻칠을 말려서 하는 기법인 '건칠'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기술자는 전국에서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어렵다. 이 때문에 그의 작품은 수십년이 흘러도 균열이 가지않고 변형이 없어 원형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다. 김 나전칠장은 이 방법으로 많은 대회에서 대상을 휩쓸었다. 광주시 미술대전 대상, 전남도 미술대전 대상, 무등대전 대상 등 그의 작품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나전칠장은 과거에 비해 많이 쇠락해 있다. 비싼 가격 탓도 있지만 바로 구입할 수 없고 많은 가구 브랜드에서 다양한 제품을 내놓은 탓이다. 이에 비해 김 나전칠장이 만든 가구는 길면 3년 이상 걸리는 등 자신이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전까지 절대 판매하지 않는 '고집'이 있다.

"과거 통영에서는 나전칠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입는 작업복만 보여주면 어디서든 외상을 달고 뭐든 사거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나전칠장에 대한 존경심이 높았지요. 그런데 공장에서 찍어내는 가구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장인이 직접 만든 가구들은 점점 사라지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연내에 첫 전시회 열 예정

60여년간 나전칠장으로 활동하면서 아직 단독전시회를 가진 적이 없는 김 나전칠장은 올해 안에 첫 전시회를 할 예정이다.

김 나전칠장은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나전칠장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싶은 마음은 청년 때처럼 아직 싱싱하다"며 "전통을 중시 여기는 풍조가 높아져야만 한국의 정신과 기상을 세계로 알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물 하면 김연아 떠오른다"

환경재단 설문조사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환경재단이 벌인 설문 조사에서 '피겨여왕' 김연아가 물 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으로 뽑혔다.

환경재단은 최근 서울 소재 남녀 고등학생 100명에게 '2010년 생명의 우물 캠페인 물의 날'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란 질문에 문화예술인 가운데 김연아가 18표로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마린보이' 박태환은 10표, 가수 비 7표, 이효리와 이승기가 각각 4표로 뒤를 이었다.

'물을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을 묻는 항목에는 박태환이 가장 많은 19표를 얻었고 김연아가 15표로 2위를 차지했다.

'물을 매우 아껴쓸 것 같은 사람' 설문에서는 법정스님과 한비야가 각각 13표, 8표로 1~2위에 올랐다.

응답자들은 물하면 떠오르는 국내 지역 1위로 제주도(16표)를, 외국으로는 아프리카 케냐(9표)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조계사 주지에 토진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임 조계사 재산관리인(주지)에 토진스님(50)을 임명했다.

토진스님은 1980년 법주사에서 이두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84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기획실장, 집행위원장, 서울 수국사 주지를 거쳐 조계사 부주지를 맡아왔으며 중앙종회의원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칠레 복구·네팔 아동센터 건립 써 주세요"

탤런트 변정수, 굿네이버스에 1억 기부

국제구호단체인 굿네이버스는 탤런트 변정수가 칠레 지진 피해 복구 지원과 네팔 아동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굿네이버스는 "변정수씨가 최근 칠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드라마 '파스타' 출연료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는데, 여기에 개인 기부금을 합쳐 1억원을 지난 18일 기부했다"고 전했다.

변정수는 기부와 함께, 네팔 꺼이날리 지역 최초의 아동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26일 자신의 가족과 네팔로 떠날 예정이다.

그는 이번 네팔 방문을 시작으로 굿네이버스와 함께 '맘(Mom)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맘 프로젝트'는 '엄마'의 영문 표기 '맘(Mom)'과 마음의 줄임말인 '맘'을 뜻하는 말로, 마더 테레사와 같이 엄마의 마음으로 지구촌 빈곤 아동을 보듬겠다는 변정수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굿네이버스는 설명했다.

변정수의 '맘 프로젝트'는 네팔 아동복지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병원, 도서관, 학교, 보육원, 급식소, 직업훈련센터, 여성 센터 등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물을 전 세계에 100곳에 세울 계획이다.

또 제3세계를 후원하는 개인과 기업을 1천여 곳으로 늘리는 계획도 들어있다.

/연합뉴스

대장항문학회 신임 회장에

김영진 전남대병원장이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대장항문학회 제43차 학술대회에서 대한대장항문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물의 중요성' 주제 세미나

박영희 전국주부교실 광주시지부장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22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KT 3층 세미나실에서 물의 중요성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주간호사회 회장에 선출

최영자 전남대병원 간호부장이 최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시간호사회 제2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최광은·장처님씨 차남 용호군 최종진·최기자씨 장녀 영순양=27일(토) 광주경복궁웨딩컨벤션 2층(미소홀)

▲김수웅·문금순씨 장남 기연군 이종신(전 고흥부군수)·박순금씨 장녀 소연양=27일(토) 오후 4시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메리어트웨딩홀 2층(컨벤션홀)

동창·동문회

▲칠칠회 모임(회장 김창호)=26일(금) 오후 5시30분 예향식당(광주세무서 바로 옆 골목 도로) 062-223-6322, 010-6455-6296.

종친회

▲2010년도 고령신씨 전남 서부 광주종회(회장 신란식)총회=27일(토) 오전 10시30분 광덕고등학교 2층회의실. 010-8625-9988

알림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습관성 도박(경마, 인터넷 도박, 사행성 오락게임, 주식 등) 관련 전문상담 치료실시=본인 및 직계가족 포함. 상담치료와 입원치료 전액 무료. 전문심리상담가와 임상전문가가 직접 상담. 광주심리상담연구소. 062-527-3400, 3403.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모집

▲우리문화연구회 소리노리 풍물놀이 및 장구기초, 민요, 한춤 회원 모집=매주 월·수·금 오전 10시~11시, 화·금 오후 7시~8시30분.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염주체육관 11호 장구교실. 062-371-4242.

▲사랑모아 가족복지회 회원 모집=종이공예·독서모임·성교육 스터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아카데미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자 모집=월 3~4회 노인 돌보미·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수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062-412-3201.

▲부동산 경·공매 동호회원(무료) 모집=기초부터 현장 답사, 물권·채권 권리분석, 부동산 미래가치 및 환금성 분석 등. 문의 011-607-4614.

▲유급지원병(전문병) 모집=중졸 이상 학력으로 해당 특기 자격·면허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 모집 인원 1천명. 의무복무기간은 일반병과 동일, 연장복무기간은 하사로 영내거주하며 이 기간중 월 120만원·지원장려수당 월 60만원 지급. 문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팀 062-230-4246~9.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 봉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볼링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 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한국웃음협회 회원 모집=건강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어린이재단 전남가정위탁 지원센터 위탁 아동·부모 모집=친부모의 사망·가출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과 봉사 차원에서 아동을 양육해 줄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 모집=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100원회 회원 모집=1일 100원으로 부담없이 이웃 사랑 실천하실 분. 011-666-0660.

부음

▲이요순씨 별세 이경하·연순·연정씨 모친상=발인 24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김육례씨 별세 이성기·춘근·성례·명덕·순덕씨 모친상=발인 23일(화)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